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이 책으로 공부하는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언어 속에 그 사용자의 품격이 반영되어 있고 드러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과 언어는 우리 자신의 일부이자 때로는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와 소통이 중심이 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다양한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법과 언어』는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법과 언어』는 지금까지 배워 온 듣기, 말하기, 문법 영역을 심화하고 확장한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화법과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바람직한 의사소통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목에서 여러 유형의 담화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책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만들었습니다.

첫째, 화법과 언어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쉽게 설명하여 학습자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명료한 설명과 예시로 학습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습자 주도적 탐구 학습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성찰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실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셋째, 다양한 매체와 복합양식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처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생각 두드리기’, ‘개별 역량 기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탐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공부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스스로 언어생활의 주인이 되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은이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중단원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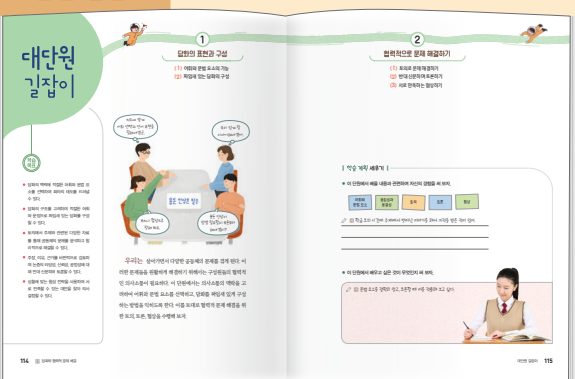
대단원 도입

대단원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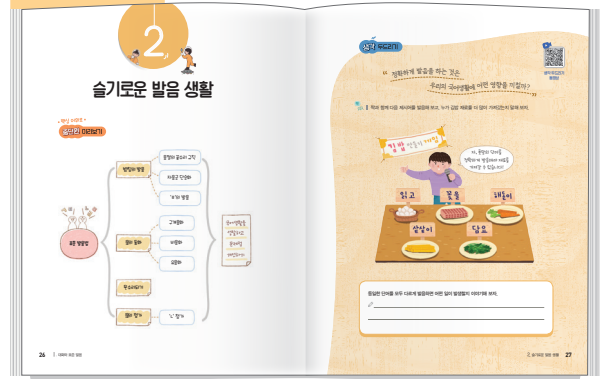
대단원명과 중단원명을 확인하고, 단원 학습을 통해 기
를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알아봅니다.

대단원 길잡이



대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단원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본 후 단원 학습 계
획을 세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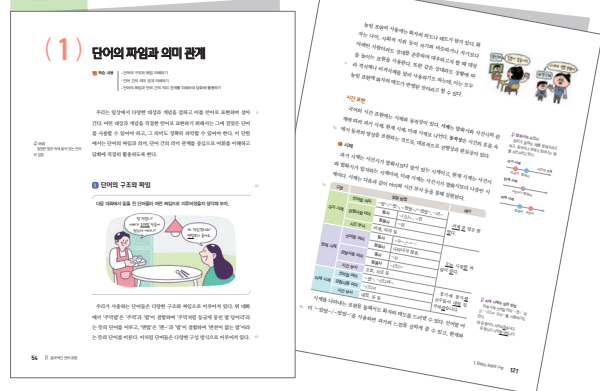
중단원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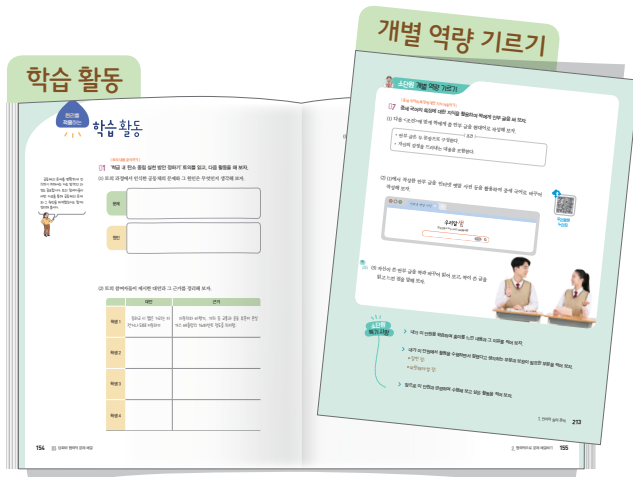
중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핵심 어휘 중심으로 도식화하여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학습 동기를 강화합니다.

소단원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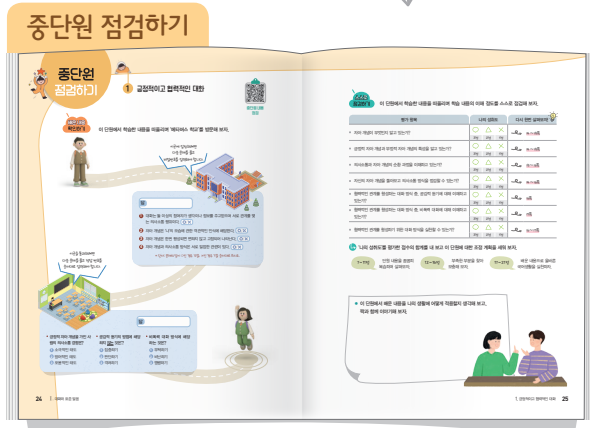
탐구



소단원에서 꼭 익혀야 할 화법과 언어의 내용을 탐구
합니다. 실생활 관련 예시와 도식화 자료 등을 통해 내
용을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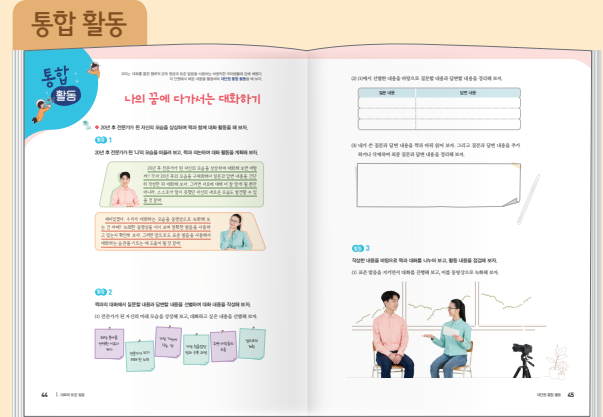


원리를 적용하고 실질적인 언어생활을 탐구해 보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 후, 개별화 활동을 통해 자신의 화법과 언어 활용 능력을 키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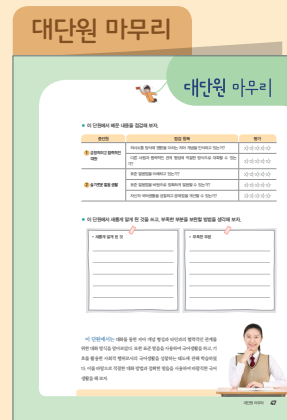


중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성취도를 점검·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삶과 연결 지어 자신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돌아보도록 합니다.

대단원 마무리



각 단원에서 학습한 화법과 언어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단원 통합 활동을 수행합니다. 개인별, 모둠별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융복합적 사고 능력을 기릅니다.



대단원의 내용을 점검하고, '대단원 길잡이'에서 자신이 세웠던 학습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교과서에 큐알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큐알 코드로 학습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나 점검 활동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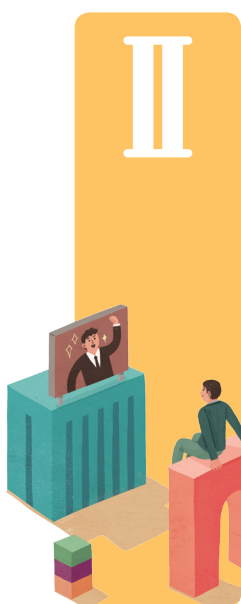


이 책의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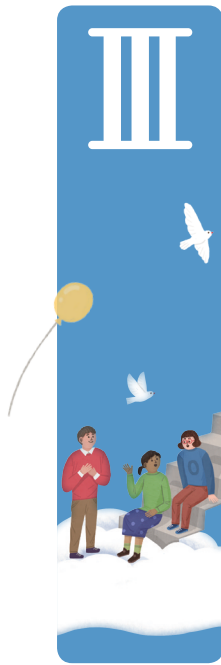
대화와 표준 발음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12
■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14
2. 슬기로운 발음 생활	26
■ 표준 발음과 국어생활	28
통합 활동 나의 꿈에 다가서는 대화하기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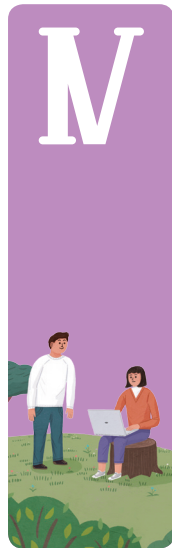
효과적인 언어 표현

1. 단어와 문장의 활용	52
(1) 단어의 짜임과 의미 관계	54
(2) 품사와 문장 구조	67
2.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말하기	84
(1) 상황에 맞게 발표하기	86
(2)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연설하기	96
통합 활동 우리 지역의 명물 소개하기	108



담화와 협력적 문제 해결

1. 담화의 표현과 구성	116
(1) 어휘와 문법 요소의 기능	118
(2) 짜임새 있는 담화의 구성	132
2.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144
(1)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	146
(2) 반대 신문하며 토론하기	158
(3) 서로 만족하는 협상하기	170
통합 활동 우리 학급 심포지엄 열기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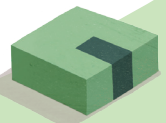


언어와 우리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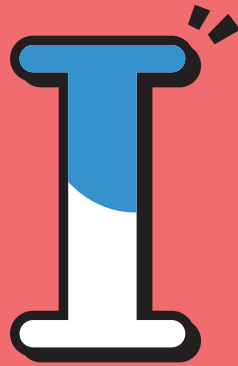
1. 언어와 삶의 흔적	192
(1) 언어와 삶	194
(2) 시대에 따른 국어의 변화	202
2. 언어의 다양한 모습	216
■ 언어의 다양성과 공공성	218
통합 활동 한 해 동안의 학교생활을 뉴스로 제작하기	230

부록

01 자료 글 출처	234
02 사진 자료 출처	237
03 쿼알 코드 출처	238







대화와 표준 발음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2. 즐거운 발음 생활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대단원 길잡이

학습 목표

-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 표준 발음을 이해하고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여 국어생활을 할 수 있다.
- 기호를 활용한 사회적 행위로서의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우리는 말과 기호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로서의 국어생활을 한다. 이 단원에서는 자아 개념과 관계 형성에 적절한 대화 방법을 알아보고, 국어의 표준 발음을 익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국어생활을 성찰해 보고, 더 나은 국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



슬기로운 발음 생활

표준 발음과 국어생활

■ 학습 계획 세우기 ■

-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써 보자.

대화	의사소통 방식	발음	음운 변동	국어생활 성찰
----	------------	----	-------	------------

예 학기 초라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했어.

- 이 단원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써 보자.

예 우리가 평소에 자주 틀리는 발음이 무엇인지 알고 정확한 발음을 익히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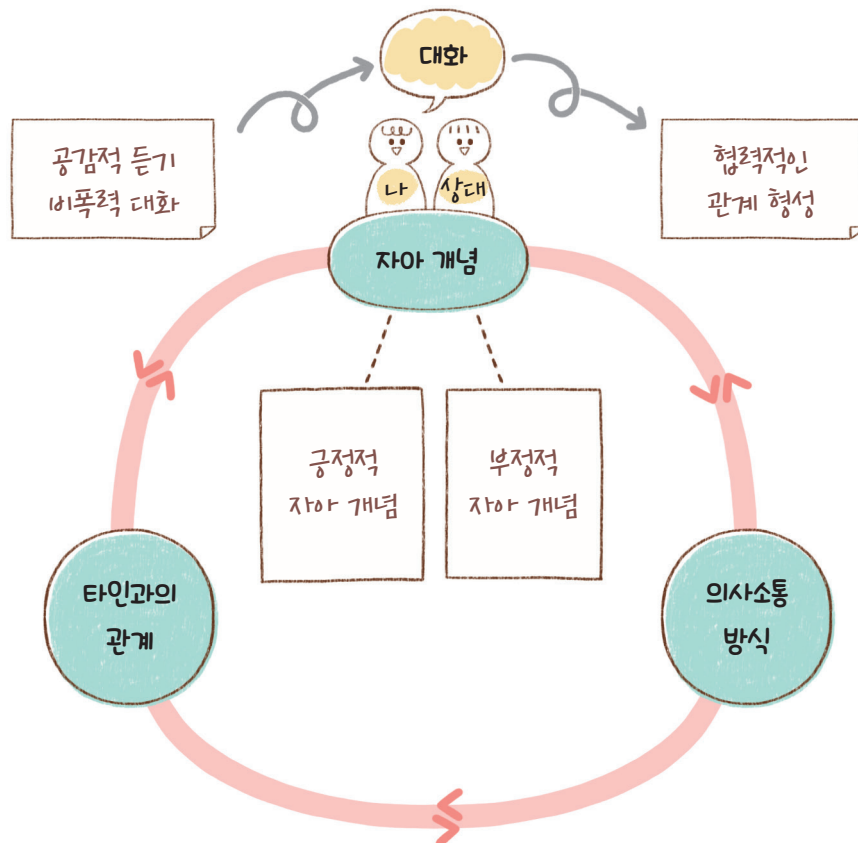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 핵심 어휘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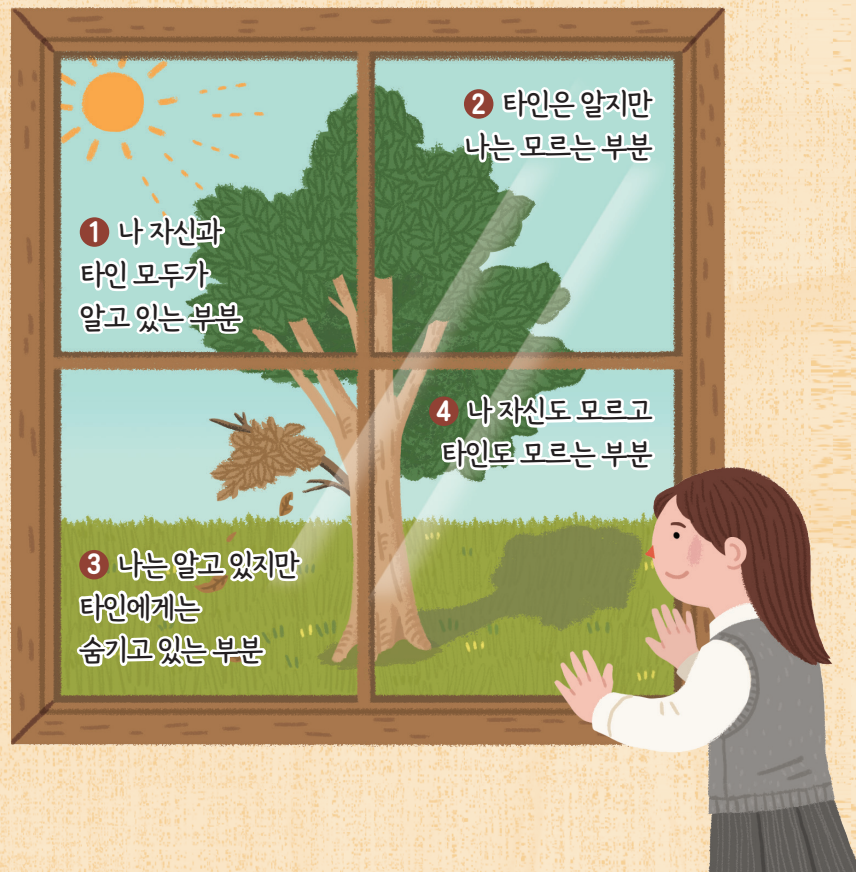
중단원 미리보기





“자아 개념은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신에 대한 나의 인식과 나에게 대한 타인의 인식을 떠올려 보고, 아래 ①~④의 창에 비추어 나 자신을 들여다보자.



‘나’에 대한 인식이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자.



자아 개념과 협력적인 대화

학습 내용

-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 방식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대화하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때 대화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화법 유형이다. 따라서 상대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 단원에서는 자아 개념이 타인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 방식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1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

대화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말한다. 대화 참여자들은 타인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을 ‘자아 개념’이라고 한다.

자아 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이다.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아 개념

-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견해로, 능력, 성격, 태도, 느낌 등을 포괄함.
-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등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제시하는 것임.

긍정적 자아 개념

- 자존감이 높고 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음.
-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포용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음.

부정적 자아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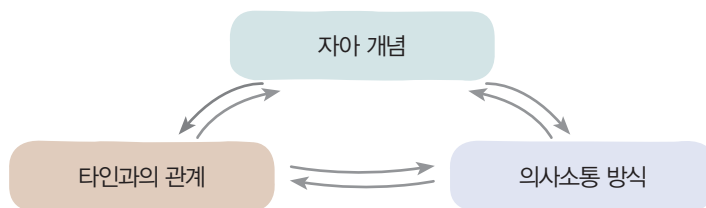
- 자신을 남과 자주 비교하며 자책하는 경향이 있음.
- 자신을 드러내기 꺼리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많음.



위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아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장하면서 변하기도 한다. 즉 자아 개념은 삶 전체에 걸쳐 형성되며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자아 개념 형성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형제, 학교에 다닐 때에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아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어 선생님께서부터 글쓰기를 잘한다고 칭찬받은 학생은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고 글쓰기에 자신 있는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과정을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에 비해 상대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긍정적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원만한 대화를 위해 자신의 자아 개념을 돌아보고 의사소통 방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자아 개념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 원인을 찾고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매사 투덜대거나 공격적으로 말하지는 않는지,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말하지는 않는지 등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점검하도록 한다.

5

2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 방식

공감적 듣기

자기표현

자기표현은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것으로, 관계에 따라 자기표현의 정도나 방식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에 따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고, 달라진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다시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가 달라진다. 서로 받아들이기에 알맞은 속도로 자기표현을 하는 게 좋다.

타인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대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의 순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 방식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하며, 상대의 입장에 공감하고 반응하며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화 시 신뢰와 친밀감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감적 듣기의 방법으로는 집중하기, 격려하기, 반영하기 등이 있다.

15

집중하기

- 말하는 상대방에게 몰입해서 듣는 방법
 - 상대를 향해 마주 보고,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음을 표현함.
- 예 민준: 어제는 내 기분이 엉망이었어.
지우: 정말? 그랬구나.

격려하기

- 상대가 이야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
 - 상대의 말에 추임새를 넣거나 상대의 말이 끊긴 경우 차분히 기다림.
- 예 민준: 나 좋은 일 생겼어.
지우: 우아, 좀 더 이야기해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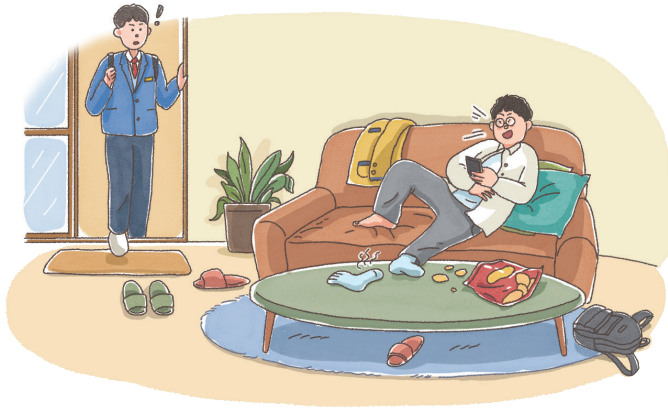
반영하기

- 상대가 한 말을 재구성하여 재진술해 주는 방법
 -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자신의 말로 풀어서 말함.
- 예 민준: 곧 시험인데 꼭 가야 할까?
지우: 네 말은 시험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의미지?

20

비폭력 대화

-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질책이나 비난을 받으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
- 5 므로 말을 할 때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비폭력 대화를 하면 상대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전달법

- 문제 상황에서 상대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대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방법
- '사건, 감정, 기대'로 메시지를 구성해 상대에게 전달함.
- 사건: 자신이 문제로 인식한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만을 대상으로 말함.
- 감정: 사건에 관해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을 진솔하게 표현함.
- 기대: 자신이 바라는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함.

가



평가·판단하기 이게 집이야? 쓰레기장이야?
감정 표현 미숙 너 때문에 정말 피곤해.
비난하기 넌 치울 줄 몰라?
명령하기 빨리 청소해!

청소는 내가 형보다 더 많이 하는데.....
나도 피곤하단 말이야!



나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물건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모습을 보니
느낌 말하기 내 마음이 편하지 않네.
욕구 표현하기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면 좋겠어.
부탁하기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을까?

관찰한 대로 표현하기 형 말을 듣고 보니 집이 정말 어지럽네.
느낌 말하기 그런데 지금은 나도 너무 피곤해서
욕구 표현하기 조금만 더 쉬고
부탁하기 곧 정리해도 될까?



- 가에서 형은 폭력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으며, 동생은 형과 비교하는 말하기
- 10 를 함으로써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 형은 비폭력 대화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동생 역시 비폭력 대화 방식으로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서로 협력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 파악하기]

01 다음 웹툰을 보고,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의 관계에 관해 생각해 보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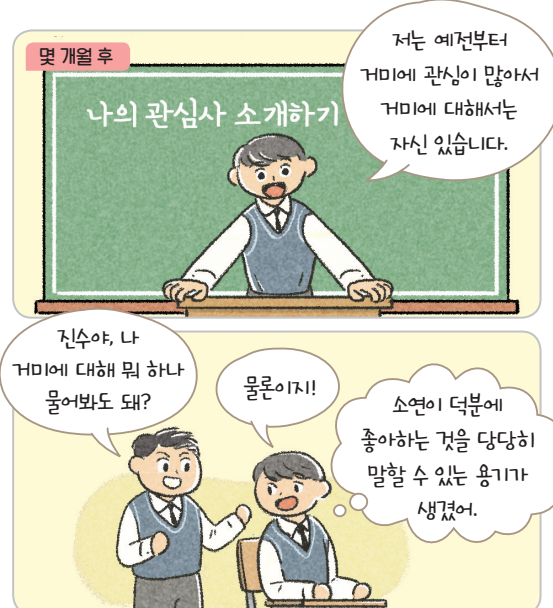
진수의 어린 시절



고등학생이 된 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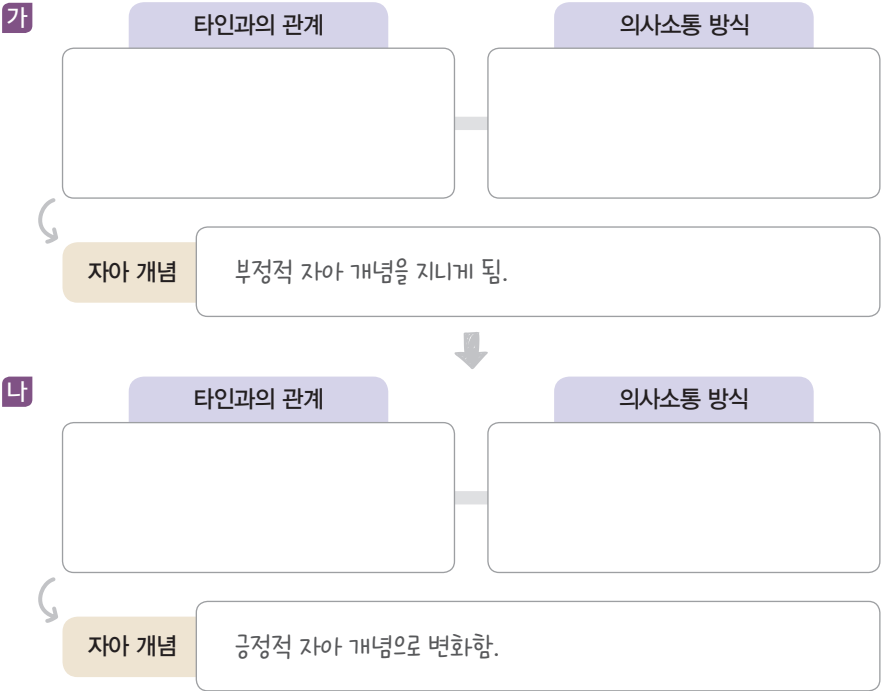
나



(1) 웹툰에서 ‘진수’가 자기 자신에 관해 인식한 부분을 찾아보고,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자.

	‘진수’가 자신에 관해 인식한 부분	평가 내용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2) ‘진수’가 형성한 타인과의 관계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과 자아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해 보자.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도 형성되며, 이것이 또다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진수’의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3) 자신도 ‘진수’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고, 그로 인해 어떤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었는지 말해 보자.

02 다음 드라마 장면을 보고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해 생각해 보자.

가 어린 시절 '짜기'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했던 '나라'는 악성 댓글과 놀림으로 상처를 받고 방송을 그만둔다. 고등학생이 된 '나라'는 반에서 존재감이 없어 고민하고, 친구들은 '나라'에게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인 '고하트' 학교 대표 선발 대회에 출연하기를 권유한다.

서우: 너도 할 수 있어. 미리 겁먹지 마.

나라: (한숨) 난 좀 무서운데. <중략> 사람들이 또 악성 댓글 쓸까 봐.

서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우리가 있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항상 네 편이야.

지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해 봐.

나라: 나는 없네요, 그 용기.

지혜: 네가 '짜기' 때 상처 많이 받은 건 아는데, 그래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나라: 그래.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어. 나도 내 상처를 극복하는 거야!

서우: 맞아, 맞아, 파이팅!

지혜: 할 수 있다, 빛나라!

나 '고하트' 학교 대표 선발 대회에 출연하기로 한 '나라'는 다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고, '나라'가 어린 시절 '짜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점차 인기를 얻는다.

나라: 애들아, 나 어제 방송에서 구독자 380명 늘었다. 대박이지?

지혜: 우와!

서우: 진짜?

나라: 댓글 반응도 엄청 좋았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서우: 나라야, 있잖아, 나…….

나라: 나는 '짜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워할 줄 몰랐어.

서우: 저기, 나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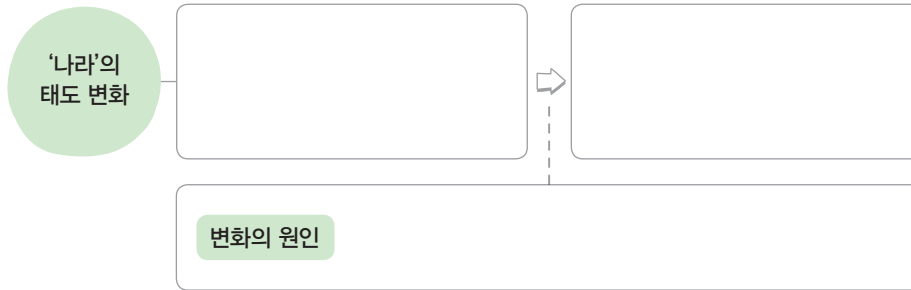
나라: 다음에 뭐 먹지? 어? 요즘 뭐가 인기 좋아?

서우: 아니, 나라야. ㉠ 너는 왜 내 말은 안 듣고 항상 네 말만 해?

나라: 어? 내가 언제?

- 신수지 각본, 손예은·박지은 연출, 「하트가 빛나는 순간」

- (1) **가**에서 '고하트' 학교 대표 선발 대회 출연에 관한 '나라'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리해 보고, 변화에 영향을 준 원인을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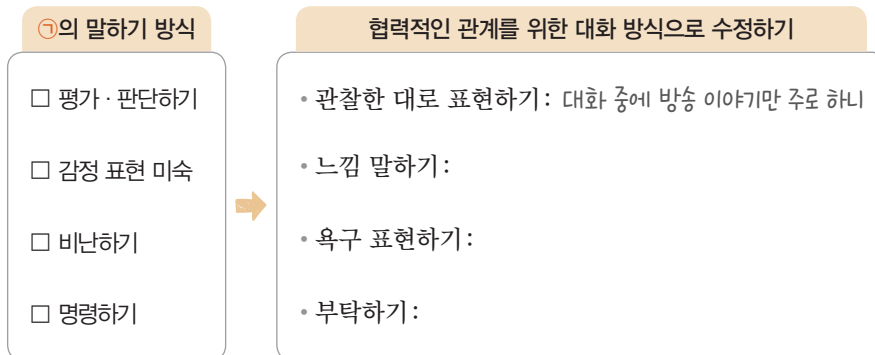


- (2) **나**의 '나라'와 '서우'의 대화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각각 적어 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나라'의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	'서우'의 말하기 방식의 문제점

-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

- (3) **나**의 ㉠이 어떤 말하기 방식에 해당하는지 점검해 보고, 상대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 방식으로 수정해 보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비폭력 대화 방식을 사용하면 상대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4)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 실천하기]

03 다음 강연을 읽고, 일상생활의 대화 방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해 보자.

‘이 사람과는 정말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중략>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은 누가 뭐 말해도 우선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 되게 재밌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신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이 웃겼지.”라는 대답은 결국 생각하면 질문의 내용과 같은 말이죠. 이건 그냥 말하는 습관이 잘못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주목을 끌려고 하다 보니 이런 나쁜 습관이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뇌에서 최소한 압정이나 머리핀으로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줍니다. 왜? 내 말이 방금 전에 부정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쉽게 지칩니다. 옆에서 누가 계속해서 찌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말의 방향을 유지하기도 되게 힘들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응대어를 쓰느냐로 대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아니 그게 아니고’라고 하는 응대어를 사용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맥락이나 어떤 기조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말투가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건 사실 본능이죠.

- △△ 방송, 『심리 읽어드립니다』

(1) 위 강연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화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2) 일상생활에서의 대화를 되돌아보고,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 방식을 찾아 적어 보자.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 방식

- 예 잘한 점을 칭찬하기보다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는 대화 방식
-
-

(3) (2)에서 정리한 대화 방식을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바꾸어 보고, 이러한 변화가 나의 자아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자.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



(4) 모둠별로 일상생활에서 대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자.

• 예 하루에 한 번씩 짝과 함께 서로 칭찬하는 말을 한다.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공감적 듣기와 비폭력 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소단원 특기 사항

- 내가 이 단원을 학습하며 흥미를 느낀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 보자.
- 내가 이 단원에서 활동을 수행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어 보자.
 - ☞ 잘한 점:
 - ☞ 보완해야 할 점:
- 앞으로 이 단원과 관련하여 수행해 보고 싶은 활동을 적어 보자.



중단원 점검하기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중단원 내용
점검

배운 내용
확인하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메타버스 학교'를 방문해 보자.



이곳에 입장하려면
다음 문제를 풀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답

- ① 대화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생각이나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 관계를 맺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 O ☐ X
- ② 자아 개념은 '나'의 모습에 관한 객관적인 인식에 해당한다. ☐ O ☐ X
- ③ 자아 개념은 한번 형성되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나타난다. ☐ O ☐ X
- ④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 O ☐ X

* 단서: 문제의 답이 O인 경우 'O'를, X인 경우 'X'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곳을 통과하려면
다음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답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의 의사소통 경향은? ① 소극적인 태도 ② 방어적인 태도 ③ 포용적인 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적 듣기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중하기 ② 판단하기 ③ 격려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폭력 대화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탁하기 ② 비난하기 ③ 명령하기 |
|--|---|---|



**스스로
점검하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학습 내용의 이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해 보자.

평가 항목	나의 성취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 
• 자아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div>○ △ ×</div> <div>3점 2점 1점</div>	→ 14~15쪽
• 긍정적 자아 개념과 부정적 자아 개념의 특성을 알고 있는가?	<div>○ △ ×</div> <div>3점 2점 1점</div>	→ 14~15쪽
• 의사소통과 자아 개념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div>○ △ ×</div> <div>3점 2점 1점</div>	→ 15~16쪽
• 자신의 자아 개념을 돌아보고 의사소통 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가?	<div>○ △ ×</div> <div>3점 2점 1점</div>	→ 14~16쪽
•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 방식 중, 공감적 듣기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div>○ △ ×</div> <div>3점 2점 1점</div>	→ 16쪽
•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 방식 중, 비폭력 대화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div>○ △ ×</div> <div>3점 2점 1점</div>	→ 17쪽
•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 방식을 실천할 수 있는가?	<div>○ △ ×</div> <div>3점 2점 1점</div>	→ 16~17쪽

➡ '나의 성취도'를 평가한 점수의 합계를 내 보고 이 단원에 대한 조정 계획을 세워 보자.

7~11점

단원 내용을 꼼꼼히
복습하며 살펴보자.

12~16점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충해 보자.

17~21점

배운 내용으로 올바른
국어생활을 실천하자.

-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나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고, 짝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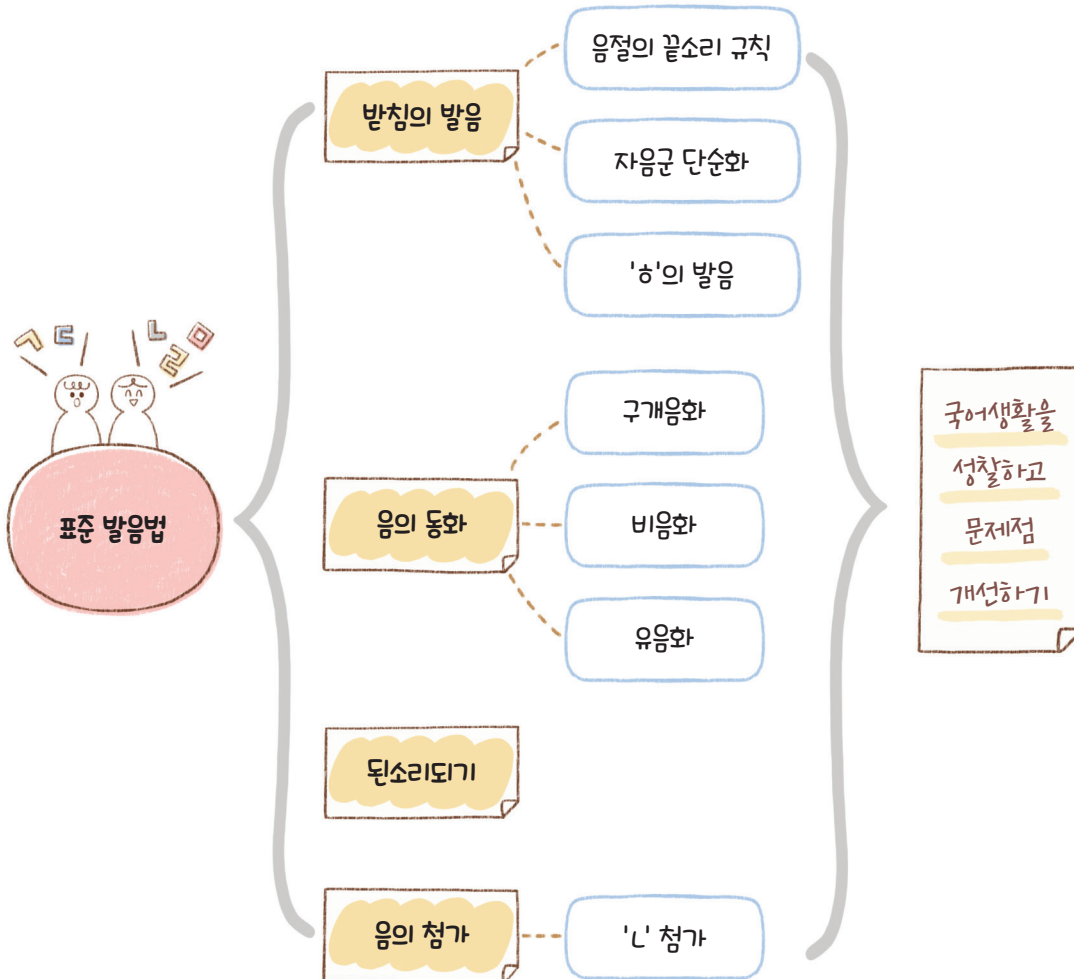




즐거로운 발음 생활

• 핵심 어휘로 •

중단원 미리보기





“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것은

우리의 국어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

작



|| 짝과 함께 다음 제시어를 발음해 보고, 누가 김밥 재료를 더 많이 가져갔는지 말해 보자.



동일한 단어를 모두 다르게 발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야기해 보자.



표준 발음과 국어생활

학습 내용

- 표준 발음법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기
- 사회적 행위로서의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점 개선하기

우리는 듣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전하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올바른 발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원에서는 표준 발음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정확하게 발음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국어생활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이전보다 발전된 국어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1 표준 발음

다음 상황을 보고 표준 발음을 규정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생각해 보자.



발음은 지역, 사회 계층, 개인의 발음 습관 등에 따라 다르게 실현될 수 있다. 그렇다고 위 상황과 같이 동일한 단어를 사람마다 다르게 발음한다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상호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표준 발음법’은 이러한 발음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제정한 발음의 규칙이다. 표준 발음법을 포함한 어문 규범을 지켜 정확하게 국어를 사용해야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한국어 어문 규범

어문 규범은 상대와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언어생활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규칙이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 규정 제2부에 명시되어 있으며, 표준 발음법 제1항에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것은 현대 서울말의 현실 발음을 기반으로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뜻이다. 또한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발음상의 관습과 일반적인 발음 규칙을 감안한다는 의미이다.

표준 발음법은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에 어떻게

- 10 발음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어의 음운 변동 현상과 관련이 있다.

표준 발음법 규정		음운 변동
제8~9항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
제17~20항	구개음화, 비음화, 유음화	
제23~28항	된소리되기(경음화)	
15 제10~11항	자음군 단순화	탈락
제12항	‘ㅎ’ 탈락	
제12항	거센소리되기(격음화)	축약
제29항	‘ㄴ’ 첨가	첨가

국어의 전통성

오늘날에는 단모음 ‘ㅏ’와 ‘ㅑ’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두 단모음은 오랜 기간 그 지위가 확고했고 여전히 이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오늘날 하늘에서 내리는 ‘눈[눈:]’과 시각을 나타내는 ‘눈[눈:]’, 먹는 ‘밤[밤:]’과 어두운 ‘밤[밤:]’ 등의 장단음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랫동안 이들은 구별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이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어의 전통성에 따라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국어의 합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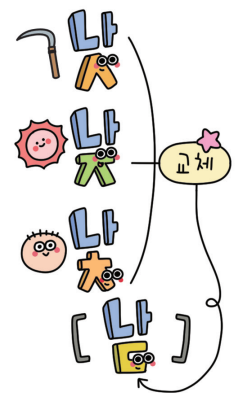
‘흙을, 여덟을, 닭이’를 발음할 때 겹받침 중 하나를 탈락시켜 ‘[흐글], [여더를], [다기]’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합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에 겹받침 중 하나를 연음해 ‘[흘글], [여덜블], [달기]’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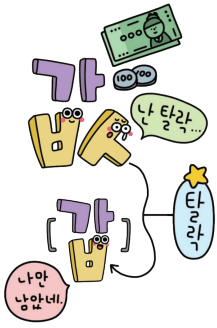
받침의 발음

- 20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국어의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뿐이다. 이 밖의 나머지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받침	발음	예시
ㄱ, ㅋ	[ㄱ]	밖[박], 키웁[키웁]
ㄴ, ㄹ, ㅅ, ㅆ, ㅈ, ㅊ, ㅌ	[ㄷ]	웃[웁], 있다[읷따], 낮[납], 꽃[푹], 숲[쑹]
ㅂ	[ㅂ]	앞[압]





출발침과 쌍발침의 발음

출발침이나 쌍발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웃어[오시], 깎아[까까]

②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의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자음이 두 개 연결된 자음군이 음절의 끝소리에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만 남고 나머지 하나는 탈락한다.

받침	발음	예시
ㄱ, ㄴ, ㄷ, ㄹ, ㅁ, ㅂ	앞 자음 선택	몫[목], 앓다[안따], 외곶[외골/웨골], 훔다[할따], 없다[업:따]
ㄷ, ㄹ	뒤 자음 선택	삶[삼:], 앓[암:], 읊다[읊따 → 읊따]
ㄴ, ㄹ	상황에 따라 다름.	맑다[막따], 맑고[말꼬] 넉지[넉찌], 넉죽하다[넉쭈카다]

이때 ‘ㄴ’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ㄱ]으로 발음하고, 용언의 어간 말음에 위치할 경우 대부분 [ㄱ]으로 발음하지만, ‘ㄱ’ 앞에서는 [ㄴ]로 발음한다.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ㄴ]로 발음하는데, 다만 ‘넉-’의 경우 자음 앞에서 [ㅁ]으로 발음하고 ‘넉-’의 경우 ‘넉죽하다’, ‘넉등글다’는 [넉]으로 발음한다. 한편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앓아[안자], 젊어[절머]’ 등이 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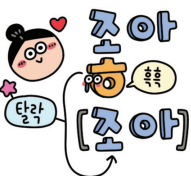
③ ‘ㅎ’의 발음 - 거센소리되기과 ‘ㅎ’ 탈락

받침으로 쓰인 ‘ㅎ(ㄹᄫᆞᆯ, ㅎ)’은 어떤 말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ㅎ(ㄹᄫᆞᆯ, ㅎ)’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 뒤 음절 첫소리와 결합하여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받침 ‘ㄱ(ㄱ), ㄷ, ㅌ(ㅌ), ㅌ(ㅌ)’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 [ㅋ, ㅌ, ㅊ, ㅊ]으로 발음하는데 이를 거센소리되기 혹은 격음화라고 한다.

놓고[노코] 쌍지[싸치] 앓던[안턴]
만형[마텅] 좁히다[조피다] 밝히다[발키다]

‘ㅎ(ㄹᄫᆞᆯ,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낱은[나은] 많아[마:나] 닳아[다라]



음의 동화와 발음

① 구개음화

-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굳이듣다[고지듣따] 굳이[구지] 굳히다[구티다 → 구치다]

② 비음화

- 받침 ‘ㄱ, ㄷ, ㅂ’ 뒤에 비음인 ‘ㄴ, ㅁ’이 올 때 앞선 받침인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의 조음 방식에 동화되어 동일한 조음 위치의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비음화가 일어난다.

먹는[멍는] 닫는[단는] 잡는[잠는] 책 만들다[챙만들다]

- 받침 ‘ㅁ, ㅇ’ 뒤에 결합되는 ‘ㄴ’이 [ㄴ]으로 발음되거나, 받침 ‘ㄱ, ㅂ’ 뒤에 결합되는 ‘ㄴ’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받침 ‘ㄱ, ㅂ’ 뒤에서 ‘ㄴ’이 [ㄴ]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그 [ㄴ] 때문에 ‘ㄱ, ㅂ’이 다시 [ㅇ, ㅁ]으로 발음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한자어에서 일어난다.

담력[담:넉] 대통령[대:통녕] 막론[막논 → 망논] 협력[협넉 → 험넉]

③ 유음화

-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바뀌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 ‘ㄴ’이 ‘ㄹ’ 앞에 올 때 ‘ㄹ’로 동화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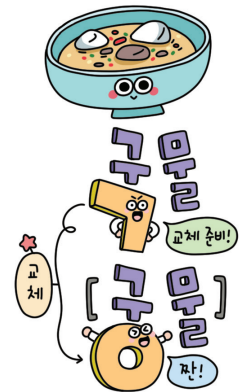
권력[궐력]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괘령]

- ‘ㄴ’이 ‘ㄹ’ 뒤에 올 때 ‘ㄹ’로 동화되는 경우

설날[설:랄] 불놀이[불로리] 줄넘기[줄림끼]

비음화의 양상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여린입 천장소리
파열음	ㅂ	ㄷ	ㄱ
파찰음	ㅃ	ㄸ	ㄲ
마찰음	ㅍ	ㅌ	ㅋ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첫소리 ‘ㄴ’이 ‘ㄹ’, ‘ㄷ’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ㄴ’은 [ㄹ], [ㄷ]으로 발음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ㄴ’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생산량[생산냥]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뽀뇨]

된소리되기와 발음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앞에 오는 소리의 영향을 받아 각각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로 바뀌는 현상을 된소리되기 혹은 경음화라고 한다. 5

된소리되기는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난다.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고, 어간 받침 ‘ㄴ,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또한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10

국밥[국꺾] 있던[인뽀] 낫설다[낫썰다] 옆집[엽집]
신고[신:꼬] 넘지[넘:찌] 할 것을[할꺼슬]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그 밖의 환경

- 어간 받침 ‘ㄹ, 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다[할따], 떨어[떨:찌]
- 한자어에서, ‘ㄴ’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갈증[갈쑹], 말살[말쌀]

‘ㄴ’이 첨가되는 발음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15

맨-입[맨닙] 한-여름[한녀름] 식용-유[시공뉴]

앞말의 마지막 자음이 ‘ㄴ’일 경우에는 ‘설-익다[설릭따], 휘발-유[휘발류]’처럼 첨가되는 ‘ㄴ’이 실제로는 [ㄹ]로 발음된다. 이것은 ‘ㄴ’이 첨가된 후 ‘ㄴ’이 앞의 ‘ㄴ’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0



2 국어생활의 성찰

다음 만화를 보고 우리가 국어생활을 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보자.



이중 모음 '의'의 발음과 표기의 혼동

국어생활에서의 실수는 발음과 표기의 혼동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에 소원'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예는 '의'가 조사일 경우 '에'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를 [우리에]로 발음하다가 '의'를 발음 나는데로 '에'로 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의'는 다음과 같이 발음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 ① 단어의 첫음절 '의'는 [-i]로 발음
예) 의사[의사]
- ②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경우에는 [i]로 발음
예) 희망[희망]
- ③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i]로, 조사 '의'는 [e]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
예) 주의[주의/주이], 혐의[혐의/혐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우리는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뿐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간다. 잘못된 발음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어렵게 하며, 타인과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표준 발음을 익혀 상황에 맞는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더 나아가 표준 발음 외에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과 같은 어문 규범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범에 맞는 국어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어문 규범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 스스로의 국어생활을 성찰해야 한다. 국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국어생활은 더 원활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학습 활동

표준 발음
확인 활동

| 표준 발음 확인하기 |

01 다음 단어들의 표준 발음을 고른 후 관련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적어 보자.

닭다

다음 단어로 >

표준 발음

☐ 닥따
 ☐ 닥다

관련 음운 변동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자음군 단순화

☐ 거센소리되기

☐ 된소리되기

☐ 구개음화

☐ 유음화

☐ 비음화

☐ 'ㄴ' 첨가

	표준 발음		관련 음운 변동
닭다	닭따	닭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여덟	여덜	여덟	
많고	만:꼬	만:코	
발이	바치	바티	
키웁만	키웁만	키웁만	
천리	천니	철리	
물상식	물상식	물쌍식	
꽃잎	꼬딇	꼰닙	

02 다음 대화 상황을 보고 표준 발음 규정을 탐구해 보자.



도움말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1) 세 번째, 네 번째 대화에서 남학생의 답변을 완성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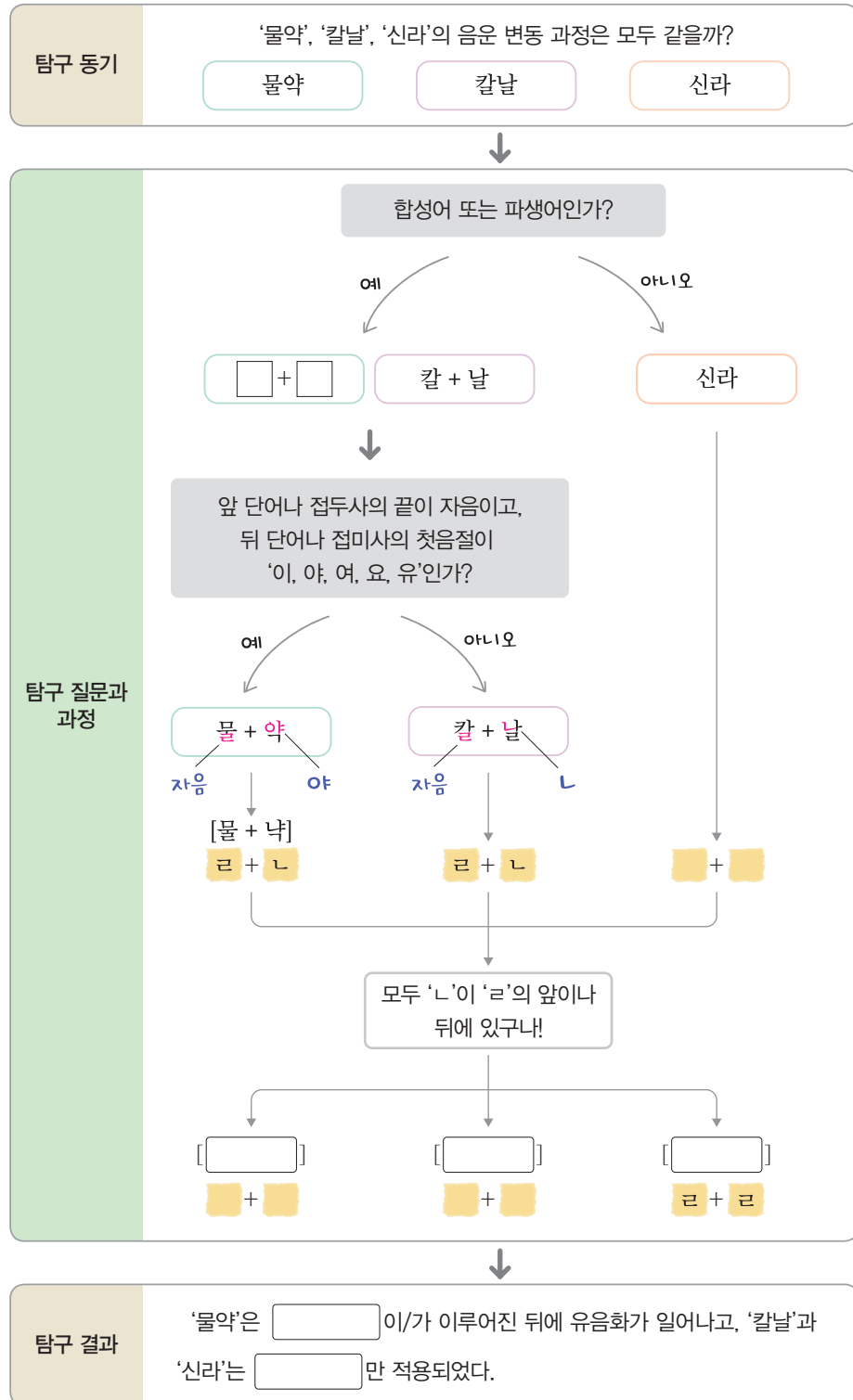
(2)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학생의 방송 대본을 정확하게 읽어 보자.

(3) 표준 발음법 규정 제13항, 제14항과 관련된 사례를 더 찾아 정리해 보자.



한국어 어문 규범
누리집

03 다음 활동을 통해 음운 변동의 과정을 탐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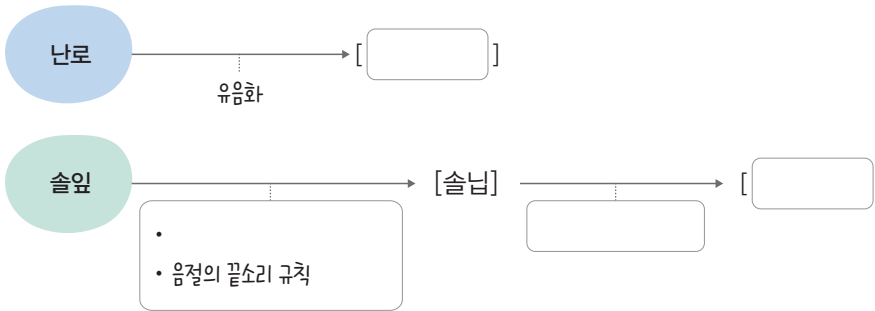
(1) 다음 표준 발음법을 바탕으로 위 탐구 과정의 빈칸을 완성해 보자.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ㄹ]로 발음한다.

(2) (1)의 탐구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단어들을 음운 변동 과정에 따라 정확하게 발음해 보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국어의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뿐입니다. 이 밖의 나머지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발음해야 합니다.



(3)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을 적어 보고, 두 번 이상의 음운 변동 과정을 겪는 단어들을 더 찾아보자.



04 다음 표준 발음법 제12항을 바탕으로 ‘ㅎ’의 발음에 관해 탐구해 보자.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ㄸ, ㅌ)’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ㅈ]으로 발음한다.
[붙임 1] 받침 ‘ㄱ(ㄷ, ㅌ), ㄷ, ㅈ(ㅊ, ㅌ)’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ㄱ, ㄷ, ㅈ]으로 발음한다.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ㅆ, ㅌ, ㅍ’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2. ‘ㅎ(ㄸ, ㅌ)’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붙임] ‘ㄸ, ㅌ’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4. ‘ㅎ(ㄸ,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1) 다음 단어들은 위 자료에서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탐구해 보자.

종던[조:턴] 놓는[논는] 똥네[똥레] 쌓이다[싸이다]

(2) 다음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 사례를 (1)에 제시된 단어 중에 찾아서 그 과정을 정리해 보자.

음운 변동 종류	음운 변동 과정
교체	
탈락	
축약	
탈락, 교체	

(3)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정확하게 발음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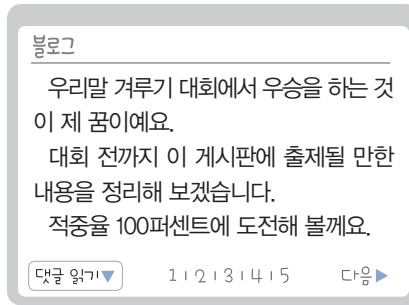
- 고마운 친구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하면 어떨까?
-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자.

05 다음 매체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어생활에 관해 성찰해 보자.

가



나



(1) **가**와 **나**에서 잘못된 발음과 표기를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잘못된 발음과 표기	바르게 고치기
가		
나		

(2) (1)과 같이 발음이나 표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내용 전달만 생각하고 발음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
-

도움말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어문 규범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뜻만 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언어 사용 태도, 발음이 유사한 단어들의 정확한 표기를 확인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습관, 어문 규범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이를 경시하는 태도 등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생활을 방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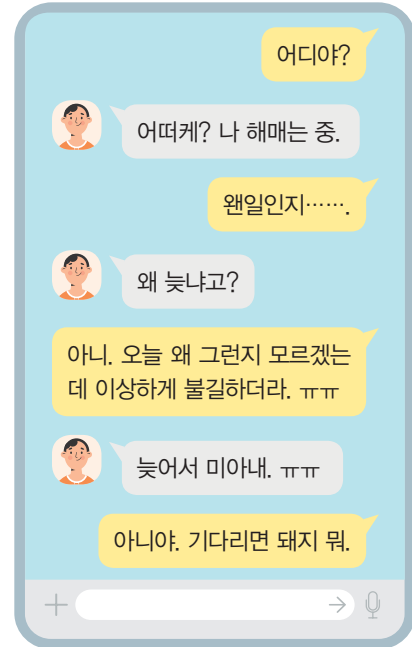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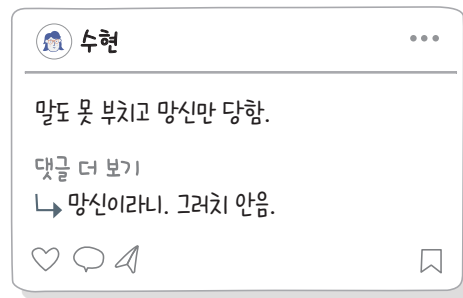
(3) (1)과 (2)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어생활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자.



[일상생활에서의 국어생활 돌아보기]



06 친구들과의 대화, 컴퓨터나 휴대 전화를 활용한 대화 등을 떠올려 보고 짝과 함께 평소 국어생활을 되돌아보자.



(1) 위 사례들을 참고하여 일상생활에서 내가 자주 틀리는 발음이나 표기를 적어 보자.

(2) 짝과 함께 (1)의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자.

(3) (1)에서 정리한 자주 틀리는 발음이나 표기를 정확하게 고쳐 보자.



(4) 짝과 함께 바람직한 국어생활을 위한 실천 사항을 정리해 보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해 보자.

- 단어장을 만들어서 틀리는 발음이 나올 때마다 적어 두자.
- 일주일에 한 개씩 자주 틀리는 단어의 정확한 표기를 암기하자.
-
-

소단원 특기사항

- 내가 이 단원을 학습하며 흥미를 느낀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 보자.
- 내가 이 단원에서 활동을 수행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어 보자.
 - ☞ 잘한 점:
 - ☞ 보완해야 할 점:
- 앞으로 이 단원과 관련하여 수행해 보고 싶은 활동을 적어 보자.



중단원 점검하기



2 슬기로운 발음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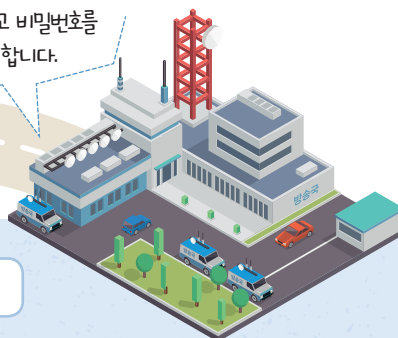
중단원 내용
점검

배운 내용
확인하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메타버스 방송국'을 방문해 보자.



이곳에 입장하려면
다음 문제를 풀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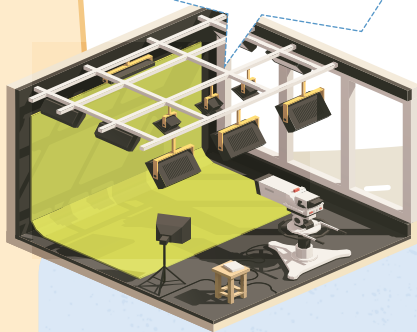


답

- 표준 발음법은 현실 발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발음 습관에 따라 각자 다르게 발음해도 된다. ○/×
- 국어의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 뿐이다. ○/×
- 구개음화는 끝소리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하여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 비음화는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바뀌는 현상이다. ○/×

* 단서: 문제의 답이 ○인 경우 'ㅇ'을, ×인 경우 'ㅣ'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곳을 통과하려면
다음 문제를 풀고 정답 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답

- '부엌'의 표준 발음으로 알맞은 것은?
 - [부어기]
 - [부어키]
 - [부어치]
- 다음 중 표준 발음에 맞게 읽은 것은?
 - 닭이[다기]
 - 문법[뭉뻬]
 - 콩엿[콩뉘]
- '물난리', '광한루'의 발음에 적용되는 음운 변동 현상은?
 - 비음화
 - 유음화
 - 구개음화



**스스로
점검하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학습 내용의 이해 정도를 스스로 점검해 보자.

평가 항목	나의 성취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 
표준 발음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3점	 2점	 1점	 28~29쪽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 거센소리되기와 ‘ㅎ’ 탈락을 이해하고 있는가?	 3점	 2점	 1점	 29~30쪽
구개음화, 비음화, 유음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3점	 2점	 1점	 31~32쪽
된소리되기를 이해하고 있는가?	 3점	 2점	 1점	 32쪽
‘ㄴ’ 첨가를 이해하고 있는가?	 3점	 2점	 1점	 32쪽
표준 발음을 지켜 발음하려고 노력하는가?	 3점	 2점	 1점	 33쪽
자신의 국어생활을 성찰하며 더 나은 국어 화자가 되려고 노력할 수 있는가?	 3점	 2점	 1점	 33쪽

👉 ‘나의 성취도’를 평가한 점수의 합계를 내 보고 이 단원에 대한 조정 계획을 세워 보자.

7~11점

단원 내용을 꼼꼼히
복습하며 살펴보자.

12~16점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충해 보자.

17~21점

배운 내용으로 올바른
국어생활을 실천하자.

-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나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고, 짝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우리는 대화를 통한 협력적 관계 형성과 표준 발음을 사용하는 바람직한 국어생활에 관해 배웠다.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대단원 통합 활동**을 해 보자.

나의 꿈에 다가서는 대화하기



◆ 20년 후 전문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짝과 함께 대화 활동을 해 보자.

활동 1

20년 후 전문가가 된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짝과 의논하여 대화 활동을 계획해 보자.



20년 후 전문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여 대화해 보면 어떨까? 각자 20년 후의 모습을 구체화해서 질문과 답변 내용을 간단히 작성한 뒤 대화해 보자. 그러면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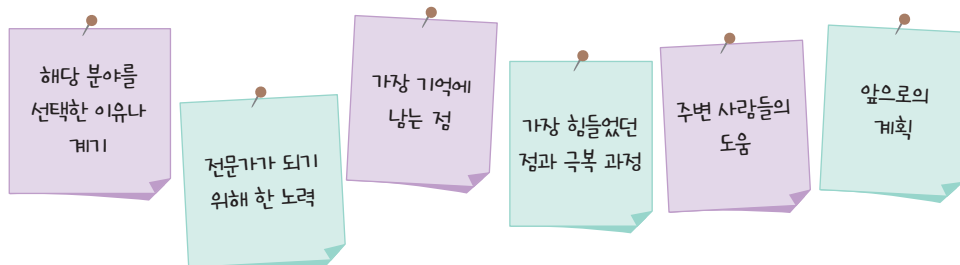
재미있겠다. 우리가 대화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보는 건 어때? 녹화한 동영상을 다시 보며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면 앞으로도 표준 발음을 사용해서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활동 2

짝과의 대화에서 질문할 내용과 답변할 내용을 선별하여 대화 내용을 작성해 보자.

(1) 전문가가 된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고, 대화하고 싶은 내용을 선별해 보자.



(2) (1)에서 선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할 내용과 답변할 내용을 정리해 보자.

질문 내용	답변 내용

(3) 내가 쓴 질문과 답변 내용을 짝과 바꿔 읽어 보자. 그리고 질문과 답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최종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자.



활동 3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짝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활동 내용을 점검해 보자.

(1) 표준 발음을 지키면서 대화를 진행해 보고, 이를 동영상으로 녹화해 보자.



(2) 동영상으로 녹화한 장면을 보면서 짝과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자.

- 대화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적어 보자.

나 자신에 대해 더 알게 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친구가 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표준 발음에 맞게 말하기를 수행했는지 점검해 보고 잘못된 발음을 고쳐 보자.

잘못 발음한 부분	올바르게 고친 발음



활동 4

다음 평가 기준에 따라 활동을 평가해 보자.

평가 기준	평가
대화하면서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였는가?	☆☆☆☆☆
적합한 대화 방식을 사용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를 하였는가?	☆☆☆☆☆
표준 발음을 사용하여 발음하였는가?	☆☆☆☆☆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는가?	☆☆☆☆☆



대단원 마무리

-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자.

중단원	점검 항목	평가
1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가?	☆☆☆☆☆
	다른 사람과 협력적인 관계 형성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가?	☆☆☆☆☆
2 슬기로운 발음 생활	표준 발음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
	표준 발음법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가?	☆☆☆☆☆
	자신의 국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가?	☆☆☆☆☆

- 이 단원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쓰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 새롭게 알게 된 것

• 부족한 부분

이 단원에서는 대화를 통한 자아 개념 형성과 타인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위한 대화 방식을 알아보았다. 또한 표준 발음을 사용하여 국어생활을 하고, 기회를 활용한 사회적 행위로서의 국어생활을 성찰하는 태도에 관해 학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화 방법과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여 바람직한 국어생활을 해 보자.

